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8p

Clarksons에 따르면, 지난 주 신조선가 지수는 127p, 중고선가 지수는 88p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중국의 Hudong-Zhonghua가 United Liquefied Gas LNG(COSCO PetroChina와 PetroChina subsidiary Glasford Shipping의 합작투자회사)로부터 174,000CBM급 LNG선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올해 전세계 누적 발주량은 269척(-53% YoY)이라고 보도됨. (Clarksons)

Start-up at key Equinor project off Norway delayed by at least a year

노르웨이의 국영석유업체 Equinor가 Johan Castberg field 프로젝트의 가동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지연시킬 계획이라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노르웨이의 핵심 offshore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싱가포르 야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유설비(floater) 건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Upstream)

Chinese yards look for next wave of offshore work

중국 조선소들의 해양 수주잔고가 말라가고 있다고 보도됨. 아직까지는 17개의 hull과 12개의 topside 물량이 남아있으나, 2021년까지 해당 물량들을 인도하고 난 후에는 일감이 소진되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미국, 다음주 한국 고등훈련기 T_50 포함 공개입찰 시작

미 공군이 한국의 T-50을 포함해 경쟁 입찰로 훈련기를 빌려오는 사업을 결정했다고 보도됨. 지난 1월 17일 미 공군 임대 사업의 단독 입찰로 선정(8대)됐으나 불발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KBS)

Democrats call for US to become net-zero by 2050

미국 민주당은 공격적인 온실가스 대책안을 공개하고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발생량 제로(Zero) 목표를 발표했다고 보도됨. 2035년부터는 오직 전기차만 생산하도록 제한하고 2040년까지 공장 설비를 전지전자 방식으로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겠다고 발표함. (Upstream)

철강-조선, '후판 가격' 힘겨루기

철강업계는 지난해 인하한 제품 가격으로는 급등한 원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후판 가격을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반해 조선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주 절벽 위기 상황에서 제품 가격까지 오르면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됨. (아시아경제)